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주황빛 단풍,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우리나라에서 나무가 가장 주목받는 계절이 있다면, 그 시기는 가을일 것이다. 사람들은 다채로운 단풍색을 만끽하기 위해 나무를 찾고, 보고, 감상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어떤 나무의 단풍을 제일 좋아하세요?” 얼마 전 만난 지인으로 부터 받은 질문이다. 나는 곧바로 답했다. “그냥 다채로운 단풍잎의 조화가 감상스러울 뿐,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선호하는 단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곤 돌아서서 생각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특별히 좋아했던 단풍색이 있던가?’

이튿날 아침 작업실 근처 광릉숲을 걷다 길게 늘어선 침엽수림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문득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단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눈앞에 늘어선 메타세쿼이아의 단풍이었다.

오래전 우리나라의 구과식물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산림의 반을 이루는 소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등의 바늘잎나무를 관찰한 적이 있다. 구과식물 중 대다수는 바늘잎나무이고, 이들은 겨울에도 녹색의 잎을 내보인다. 연구실 동료들은 대다수의 식물이 동면하는 겨울에 조사, 채집 출장을 가지 않았지만 구과식물을 그리는 나는 겨우내 분주했다.

물론 바늘잎나무 중에는 가지에 잎이 없는 상태로 겨울을 나는 종도 있었다. 메타세쿼이아와 낙우송, 일본잎갈나무 등은 가을에 낙엽이 지고, 가지에 잎이 없는 상태로 겨울을 나는 낙엽침엽수다.

이들이 가을에 낙엽을 떨구는 데엔 여러 장점이 있

다. 겨우내 체내 수분과 영양소를 아낄 수 있고, 눈과 얼음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은 쌓이고 분해되며 토양에 유기물과 영양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겨우내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어주기도 한다.

동시에 이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도록 생존해 온 나무다. 이들이 겨울을 나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존재 자체로 증명하고 있다.

메타세쿼이아는 흔히 되살아난 나무,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공룡이 살던 시대에 존재했던 이 나무는 백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에서 멸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1944년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노목으로 다시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메타세쿼이아는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수고가 높고, 물가에서도 잘 사는 이 나무를 인간은 가만히 둘지 못했다. 메타세쿼이아는 1952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시 가로수와 공원 조경수로 널리 식재되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은 1972년 조성되기 시작했다. 국도 24호선, 군청-금성면 원울삼거리 구간엔 5년생 나무 약 1300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제정 여건상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준비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나무를 심고 가꾸는 선택을 피할 수 없었다. 덕분에 50년이 지난 지금, 약 8.5km 길이의 도로를 가운데 두고 높이 30m의 메타세쿼이아 2000여

그루가 양쪽으로 줄지어 서있는 풍경이 되었다.

오래전 고속도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이 길이 사razil 위협에 처한 적이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도로가 비껴났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장소인 셈이다.

봄이면 길의 나무들은 주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산책로가 되고, 여름에는 귀한 그늘이 되어준다. 가을에는 주황빛으로 물든 단풍 길이 된다. 바로 지금 메타세쿼이아길에 주황빛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바늘잎은 넓은잎(활엽)과 달리 잎 사이로 햇빛이 종종 새어 나오고, 햇빛은 바닥에 주황빛 그림자를 선사한다.

십여 년 전 이맘때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서 본 아름다운 단풍 풍경을 잊지 못해 그 후로 두어 번 그곳을 들렀지만, 이전에 내가 본 선명한 주황빛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자연 풍경은 매 순간 다르다. 계절이 같고, 날씨가 같을지라도. ‘오로지 이 순간뿐’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연을 감상해야 한다.

식물은 내게 포용력을 길러준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좋아하게 만든다. 식물을 공부하기 전까지 나는 딱히 주황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을 빛에 익숙해지는 갈나무와 꾀리의 열매, 금복사의 꽃 그리고 메타세쿼이아의 단풍을 마주한 후로 나는 주황색을 좋아하게 되었다. 식물을 공부한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좋아하는 게 느는 나를 마주하는 일이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고위험성 질환 ‘폐렴’



최하영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진료과장

바이러스성 폐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 포용합바이러스,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다.

기타 감염성 병원체도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핵균, 균상 폐렴, 세균성 폐렴에 의한 합병증인 유행성 수막구균 감염 등이 있다. 이밖에 화학물질, 알레르기 반응, 방사선 치료 등도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폐렴의 주요 증상 중 하나는 기침과 가래이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폐렴의 경우 감기보다 증상이 더 심해, 기침을 할 때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 묽고 끈적한 가래가 생기는 것도 폐렴 증상의 특징 중 하나다.

폐렴은 또 기침 증상은 감기나 독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녹색 점액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단순한 감기 증상만 있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폐렴 환자 중 80-90% 이상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 이러한 통증은 주로 잦은 기침 때문으로 흉통이 있을 때 계속 기침하면 심호흡에 의한 통증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 폐렴에 감염되면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둔통을 느낄 수 있다.

오한도 폐렴의 증상 중 하나다. 폐렴으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생기는데, 초기에 약물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

폐렴은 폐 기능을 저하시켜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폐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호흡이 힘들어진

다. 숨 가쁨 증상은 종종 기관지염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폐렴의 초기 증상은 일반 감기나 기관지염과 유사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폐렴을 의심해야 한다.

폐렴이 발생하면 폐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손과 발, 입술 등 피부가 얇은 부위가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다.

폐렴 치료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약물 치료는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조기에 사용할수록 예후가 좋다. 하지만 진단 당시 원인균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끝내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폐렴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진 균들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투여한다.

비약물 치료법으로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수분공급이 필요하며 가래를 잘 배출시키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폐렴의 위험을 낮추는 예방접종에는 두가지가 있다. 먼저 독감 예방접종이 있다. 독감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차적인 세균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폐렴구균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폐렴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폐렴구균은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므로 폐렴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고

환한 미소로 행복을 안겨 준 말



이동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로 말한 것이지만 듣기에 좋은 편이 아니기에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기 쉽다.

반면 감정 언어는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말로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 자녀에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와 일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역시 당신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다. 또한 거래처 사무실 사람들에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와 같은 말이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정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인격을 만들기 때문이다. 감정 언어는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것을 꾸며서 말하면 안된다. 진실을 말하면서도 기분 좋게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계속 감정 언어를 쓰게 되면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정 언어는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안겨 준다.

정다운 말 한마디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해주고 서로의 기쁨을 열게 한다. 화사한 햇살 같은 환한 미소와 진심어린 따뜻한 눈빛 하나도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한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남이 아닌 내가 먼저 바뀌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답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다. 말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가운 말 한마디는 그대로 굳어버리게 한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사람으로 가득 차 불타는 마음의 난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말이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힘이 사라진 말이 나올 때는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입은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약한 것 같으나 제일 강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가장 슬픈 일이 입에 있고 가장 기쁜 일 또한 입에 있다. 온도 높은 좋은 말로 주변에 감동을 전하여 행복을 안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밝고 환한 말이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 삶에 활기가 넘치고 가정이나 직장, 사회 등 궁극적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활기차고 밝게 될 것이다.

가치를 높여주는 칭찬의 말은 개인의 업무능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까지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이다. 좋은 직장,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힘겨운 인생길에 예쁜 말 한마디로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나였으면 좋겠다. 작은 미소 하나가 이웃에게 평화와 희망과 행복을 주는 향기로운 나였으면 좋겠다.

환한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내 영혼을 향기롭게 하고 행복을 안겨 주어 이웃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나와 이웃이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社說

농촌까지 파고든 ‘태양광 사기’ 방관 말아야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황금알’로 떠오른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에는 해남 등 농촌을 돌며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을 빼돌리는 조직사기 범죄단까지 등장했다. 피해금액만 148억 원에 이르는 등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광주·전남에 총 2만2601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다. 2021년에는 광주·전남에 3498개(광주 219개·전남 3279개), 2022년 2914개(광주 205개, 전남 3037개), 지난해에는 3242개(광주 205개, 전남 3037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새롭게 설치됐다. 전남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난 이유는 부지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태양광 사기업자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은 태양광 붐에 들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 노인들을 꾀어 570여 명으로 부터 투자금을 챙겼다. 이들은 ‘계약금의 10%만 지급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연 1.74%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아 설비를 시공하고 20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노인들을 꾀었다.

특히 콜센터를 동원해 전화상담원에게 일명 ‘스크립트’ (각본)를 쥐 계약을 체결한 뒤 총책이 실장·팀장 등 직책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이들 피해 사례 가운데에는 무면허 태양광 발전 시설업체와 계약하거나 애당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다.

태양광 사기는 고령의 농민들을 처음부터 범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수사기관은 농촌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 도움 안되는 광주시 저출산 극복책

건강할 때 자신의 난자를 얼려서 보관해 나중에 출산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광주시의 지원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광주시의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며 수혜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취업·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고 있는 데다 아예 아이낳기를 포기한 여성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이라도 출산을 하기 위해 난자를 동결하겠다는 이들에게는 조건없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광주시가 저출산 극복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올해 고작 3명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지원을 받은 사람은 3명에 지원액도 총 330만 원에 그쳤다.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시술비 지원 기준이 엉터리인 탓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난소 기능 수치(AMH)가 1.5ng/mL 이하이며, 중위속도 180% 이하로 광주에 6개월 이상 거

주한 20-49세 여성이다. 반면 세종시는 아무런 기준 없이 난자 동결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실상 희망자 모두에게 난자동결비를 지원하고 있다. AMH는 난소 나이 측정 기준으로, 20-50세 여성 평균은 3.6ng/mL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의 지원 대상인 1.5ng/mL 이하의 수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잘못된 기준으로 난자 동결사업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적다는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감액 요청했다고 한다. 같은 사업에 올해 예산을 두 배로 늘린 서울시와 대비된다. 광주시는 하루 빨리 규정을 바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을 희망 여성 전원으로 변경하고, 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려야 할 것이다. 애 낳는다고 1억 원을 주는 지자체가 한 둘도 아닌데 한사람당 고작 200만 원 주면서 그렇게 까탈을 부려서야 되겠는가.

無等鼓

대학은 대개 중세 초기 유럽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지식의 축적·전파, 교류, 창조라는 측면에서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가르칠 사람과 배울 사람이 길드(Guild), 즉 조합을 구성해 상호 수호를 충족시키며 시작된 대학은 도시의 핵심 요소이기도 했다. 대학에서 배운 자들은 사회책임을 갖고 자아 비판 능력과 합리성을 갖춘 엘리트로 존중을 받았다.

12-16세기 파리, 발렌시아, 살라망카, 파도바를 거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요 도시에 약 80개의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유럽의 정체성과 문화는 대학을 중심으로 정립되었으며,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야가 확장되고 그 전문성 또한 깊어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1880년대 정부가 설립한 서양식 전문학교가 그 모태가 된다. 1881년 별기군을 시작으로 1900년 광무학당까지, 10여개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민간에서도 1885년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이화·송실학당 등이 비슷한 시기 들어섰다. 그만큼 조선 후기 식자층의 신

학문에 대한 배움의 열정은 컸고, 위기에 봉착한 국가를 떠맡길 지식인 양성 시스템은 시급했다.

해방 이후 20곳에 불과했던 대학은 1965년 국공립 14곳, 사립 56곳 등 70곳으로 늘었지만 급증하는학령인구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국공립 35곳, 사립 154곳 등 대학은 409곳이나 된다. 수도권으로 인구·자본·기업의 과도한 집중 속에 수도권에는 학생이 넘치고, 지방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할 심각한 위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을 타개할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했고,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송철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은 순천대총장이 지난 15일 전남의 숙원인 의대 설립을 위해 전격적으로 대학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방 대학 그리고 지방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그들의 결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데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 합의가 전남과 양 대학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유현성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목포대와 순천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